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이웃돕기 성금 3천만원 기탁
타이어뱅크는 김정규 회장이 지난 7일 공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오른쪽)과 최원철 공주시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타이어뱅크



코트라-IBK기업은행, 韓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IBK기업은행이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힘을 모은다. 두 기관은 7일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서 '혁신기업 글로벌 진출과 성장(Scale-up)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왼쪽)과 김형일 IBK기업은행 전무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코트라



LG생활건강-인포뱅크, 벤처투자조합 결성
LG생활건강은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인포뱅크와 뷰티테크 밸류업 펀드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뷰티테크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업 파급력과 기술 완성도가 높은 스타트업을 우선 선정해 투자할 예정이다. 강내규 LG생활건강 CTO(오른쪽)와 홍종철 아이엑셀 대표(왼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생활건강

무신사, 브랜드 대금 조기 정산

무신사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입점 브랜드에 정산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무신사에 따르면, 현재 팀무신사가 운영 중인 ▲무신사 스토어 ▲이십구센티미터(29CM)에 입점된 중소 협력사를 포함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평소보다 정산 일정을 단축해 이달 17일 총 1130억원의 정산 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입점 브랜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산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서울사이버대, 교육부 장관 표창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사진)는 지난달 20일 사이버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는 원격대학 교육혁신 사업을 통해 사이버대학의 교육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해 대학 온라인 교육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현진 기자



제네시스, 'TGL' 라운지 운영... 전세계 시청자 눈도장

GV70 전동화 모델·GV60 전시 증강현실 기반 고객 참여형 활동

제네시스 브랜드가 공식 후원하는 신개념 스크린 골프 리그 'TGL 프리젠티드 바이 소파이(이하 TGL)'가 공식 개막한다.

8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TGL'은 '투머로우 스포츠'가 개최하고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킬로이가 주도하는 새로운 골프 리그로, 스크린과 필드를 접목시킨 혁신적인 경기 방식과 최첨단 시설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현지시간 1월 7일부터 3월 25일 까지 미국 플로리다 소재 '소파이 센터'에서 진행되는 'TGL'에는 PGA 투어 정상급 선수들로 구성된 6개 팀이 출전해 총상금 2100만달러를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TGL'은 스크린 골프 형식으로



제네시스 후원 신개념 스크린 골프 리그 'TGL' 경기장 전경.

일반 스크린 골프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24배가 큰 가로 19.5m, 세로 16m 규격의 초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2만3225㎡(약 7000평) 규모의 실내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핀까지 거리가 50야드(약 45m) 이내인 경우에는 그린존으로 이동해 경기를 펼친다. 경기장 내 그린존은 2087㎡(약 630평)으로 실제 잔

디로 만들어졌으며, 매 홀마다 지형에 따라 경사도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TGL' 첫 시즌은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 10주간 총 20경기를 진행한다. 팀당 5경기씩을 치른 후 상위 4개 팀이 준결승에 진출해 단판으로 승부를 짓고, 오는 3월 25일(화) 3전 2선승제의 결승전으로 우승팀을 가

릴 예정이다.

제네시스는 'TGL' 출범을 함께하는 파운딩 파트너이자 공식 차량 후원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다가간다. 경기장 내 '제네시스 라운지'를 마련해 제네시스만의 환대를 담은 최상의 경기 관람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GV70 전동화 모델과 GV60를 대회장 내외에 전시하고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고객 참여형 활동을 전개하는 등 현장 갤러리에게 제네시스를 알리고 전세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한편 제네시스는 브랜드 출범 이래 2016년부터 '제네시스 챔피언십',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제네시스스코티스오픈' 등 글로벌 주요 골프 대회를 후원하며 프로 골프의 발전을 지속 도모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 빙상연맹 선거 불출마

선수단 포상금 증액 등 연맹 정상화 "빙상인으로써 응원 아끼지 않을 것"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윤홍근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사진)이 회장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4년간 함께 동행한 빙상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8일 밝혔다.

윤홍근 회장은 연맹이 지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관리단체로 선정되며 어려운 시기를 겪은 이후 대한빙상경기연맹 33대 회장으로 부임하여 행정력 및 재정 안정화, 국가대표팀 국제 경기력 향상, 유소년 발전, 국제대회 국내 개최, 생활체



육 활성화 등 연맹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윤 회장은 임기 동안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대회 선수단 단장 ▲2023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 ▲2023/24 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및 2024/25 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조직위원장 등 체육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올림픽 선수단 포상금 증액 및 치킨연금 제공, 국가대표 국제대회 파견 시 현지 식음 지원 등 선수들의 사기진작

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윤 회장은 “어려웠던 빙상계가 지난 4년동안의 집행부와 사무처의 노력으로 어느정도 안정화가 된 것 같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우리 빙상계를 더욱 발전시켜 주시리라 기대한다, 영원한 빙상인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빙상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윤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인기종목과 체육 꿈나무들을 후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체육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응원 의사를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백화점, 꿀 소비 활성화 나선다

양봉 농가와 1+ 등급 꿀 개발·유통

현대백화점이 상생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양봉 농가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시행 중인 꿀 등급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돕고, 국내산 천연꿀의 경쟁력을 강화해 꿀 소비 촉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꿀 등급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연구원이 국내산 천연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천

연꿀을 수분·과당·향미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1+, 1, 2등급으로 나눠 판정한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 용문산에서 천연 꿀을 생산하는 '허니파머스'와 협업을 통해 1+등급 인증을 받은 꿀 상품을 선보인다. 국내 양봉 농가와 협력해 1+등급 꿀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은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처음이다.

최근 기후 변화로 꿀벌 집단 폐사와 설장으로 만든 사양꿀의 유통 등으로 국내산 천연꿀에 대한 품질 보



현대백화점 판교점 허니파머스 팝업 스토어 매장에서 관계자들이 꿀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현대백화점

증과 소비자 신뢰 확보가 중요해지자 양봉 농가 지원을 결정했다는 게 현대백화점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오뚜기, 하도급대금 110억 조기 지급

현금 지급... "협력사 동반성장 노력"

오뚜기가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약 110억원의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은 하도급 업체의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급 대상은 OEM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31곳이다. 오뚜기는 당초 지급일보다 약 50여일 앞당겨 하도급대금

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 불황, 고환율,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올해 설에도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한국시멘트협회 전근식 신임 회장 선임

<한일·한일현대시멘트 대표>

한국시멘트협회가 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전근식 한일·한일현대시멘트 대표(사진)를 선임했다.

전근식 신임 회장은 한양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한일시멘트에 입사해 단양공장 부공장장과 본사 경영기획실장, 경영본부장, 한일현대시멘트 본사 총괄 부사장, 한일홀딩스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난 2022년부터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대표이사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전 회장은 한일시멘트에서 계열사 관리 및 신규사업 등 경영기획 부문에서 성과를 보이며 핵심 역량을 인정받아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됐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금용위원회 △복합지원팀장 전은주
- ◆기획재정부 ◇국장급 △장관정책보좌관 고광희
-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기술혁신정책관 박용순 △상생협력정책관 김우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기환

부음

- ▲최성순씨 별세, 조치연·조세연·조호연(EBS 이사·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조병연·조소영·조표연(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책임연구원)·조혜영(한국보건 의료정보원 팀장)씨 모친상= 8일 오전 10시20분, 충남 강경장례식장 특실, 발인 10일. 041-745-4401
- ▲류권식씨 별세, 조성자씨 남편상, 류병직(서울피부과 원장)·유병연(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씨 부친상= 8일 오전 1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1일. 02-2227-7500